

지방소멸 위기 극복 총력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전략적 수립

남원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인구감소 원인분석 결과 일자리와 교육문제에 대한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북 시, 군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남원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으로 '지역 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바이오 융합센터 시설설계 중으로 오는 11월 공사를 착공해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연구개발(R&D)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 창출 기반을 마련

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예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 가공, 유통, R&D를 집적화한 미래 농업 메카를 조성하고,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국내 유일 토종 미꾸리 양식단지를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남원 인재학당 은 스마트 강의를, 그룹 스터디실 등을 갖춘 공공형 학원으로 조성되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과 글로벌 대학 30(전북대 남원글로벌 캠퍼스 설립) 선정을 통해 지역 고등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리산권 교육 거점 도시를 넘어 글로벌 교육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87호 규모의 다양한 주택 공급과 생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기반 시설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ALL, 來) 공모사업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층 로컬 창업 공간 및 거주 시설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지역의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10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미래 산업 육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시너지를 창출하여 청년 유입을 극대화할 것"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남원시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국을 선도하는 성공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보훈회관 신축 추진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지역 보훈단체 통합 공간 마련

순창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신축 사업이 드디어 이달 착공에 들어간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지역 보훈단체들의 통합 공간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새 보훈회관은 순창읍 순화리 404-4번지, 과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던 부지(총면적 816㎡)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와 도비 각 5억 원, 군비 15억 원이 포함됐다.

현재 순창군 보훈회관은 순창공용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한 1984년 준공 건물로,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상이군경회와 전물군경미망

회 단 두 곳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5개 보훈단체는 향군회관 1층을 임차해 사용하는 상황으로, 공간 통합된 회관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영일 군수는 민선 8기 공약으로 보훈회관 신축을 직접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보훈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지 선정과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해 왔다.



군은 이번 신축을 통해 보훈단체별 공간 분리 문제를 해소하고,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보훈의식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군은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7개 보훈단체가 모두 새 회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시설적 지원이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국가에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께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예우와 실질적 지원이 병행되는 보훈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기관·단체 방문 이어져

전북도 전자민원모니터 120명, 현장학습 다녀가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각 고 있는 가운데 기관·단체들의 관광 자에서 많은 관광객이 임실을 방문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도 전자민원모니터 120명이 임실군을 방문해 육정호 부어섬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 등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북도 전자민원모니터 120명이 임실군을 방문해 육정호 부어섬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 등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임실 투어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보물섬인 육정호 부어섬 탐방을 시작으로, 임실 명품 치즈를 품은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피자만들기 체험과 치즈테마파크 투어를 연계해 임실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한국여행사협회 관계자 60여 명이 방문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 왕의숲 성수산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임실 방문의 해에 많은 관광객 유치에 열정을 보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돌봄통합 실현 위한 토론회 개최

최근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지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기연)와 좋은동네연구조합(이사장 송하웅)은 임실지역 주민, 단체, 공무원 등 110여명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토론회를 임실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임실군 돌봄통합 실현을 위한 토론회'는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임실군의 과제 점검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신대용 상임대표(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인사말과 이진관 부군수(임실군), 장종민 의장(임실군의회), 박정규 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축사로 행사를 시작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서울의대 겸임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를 지낸 문정주 박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경 박사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서양철 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돌봄통



합법 제정의 의미와 행정의 역할,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돌봄통합 체제 마련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참석한 주민, 단체, 공무원들도 질의 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군의 현황에 맞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돌봄 통합 추진 방안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해결 방안 모색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청취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위원장 영봉섭)가 제273회 정례회를 맞아 11일부터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영봉섭 위원장은 드론 배송을 남원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간 지역에 의약품 수송 같은 유의미한 작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못 받는 업종이 있다며, 정확한 실패를 파악해 풀고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태수 위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새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남원시도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윤지홍 위원은 기초생

활거점 사업 등은 시설 조성은 잘 돼 있는데 운영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이기열 위원은 곤충산업 관련하여 남원의 청년농업인을 참여시키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해달라고 주문하고, 김한수 위원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하반기에도 추진해서 먼 단위 어르신들 건강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명수 위원은 항공산업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전문가 중 자격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남원시가 필요로 하는 모집단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무원 대상 ChatGPT 활용 교육 실시

순창군이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ChatGPT 활용 보고서 작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합동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총 3회 이 분들을 파악해서 남원시가 필요로 하는 모집단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나뉘어 운영되며, △ChatGPT의 기본 개념 이해 △활용 방법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ChatGPT를 공공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보고서 품질 향상과 업무 효율 제고를 동시에 꾀하고자 마련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지리산 활력타운 하반기부터 주요 기반공사

남원시가 추진 중인 전략사업인 '지리산 활력타운' 기반시설 공사가 각종 행정절차와 실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 정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리산 활력타운은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약 56,710㎡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023년 7개 중앙부처가 공동 주관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며, 남원시 특유의 고원 지형과 지리산 자락의 청정 자연환경을 살려, 귀촌·이주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 기반과 정주 인프라를 갖춘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필지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총 8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실내 체육시설, 게스트하우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함께 들어설 계획이며, 시는 202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기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공정에 맞춰 입주 대상과 공급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자동차체 체납차량 변호관 영치 합동단속 실시

순창군은 자동차체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순창경찰서와 함께 변호관 영치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군 재무과·경제교통과와 순창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6월 넷째 주 중 관내 주요 도로에서 불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자동차체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변호관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했고, 3월 부터는 체납 차량에 대한 변호관 영치 활동을 지속 펼쳐왔다.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144건의 체납 차량에 대해 변호관을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2위)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순창=이양원 기자

IMSEOL CHEESE
임실N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